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에 따른 문제행동*

Behavior Problem According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Self-Regulation

인하대학교 아동복지학전공

박사과정 정혜진**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교수 이완정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Inha Univ.

Doctoral Course : Jung, Hye-Jin

Professor : Lee, Wan-Je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temperament, self-regulation, and problem behavior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and age, (2)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ree variables by use of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The subjects were 210 children ages from 3 to 5 in five day-care center in Incheon city. The SPSS WIN 12.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The statistical methods were Frequency, Percentage, Cronbach's α , Two-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The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Children's temperamen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ir gender and age. The boys got higher score than girls in adaptability, activity, and total temperament. Girls got higher score than boys in reactivity. The age 3 got higher score than the age 5 in activity and the ages 3, 4 got higher than the age 5 in total temperament.
- (2) Children's self-regula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ir age. The children who were older got higher scores in self-regulation ability.
- (3) Children's problems behavio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ir gender and age. The boys got higher score than girls in anxiety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hyperactive/distractive behavior, and total problem behavior. And the ages 3, 4 got higher score than the age 5 in anxiety behavior and hyperactive/distractive behavior. The age 4 got higher score the ages 3, 5 in aggressive behavior and the age 3 got higher score the ages 4, 5 in total problem behavior.
- (4) Canonical correlation results showed that stable temperament and self-regula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and self-regulation and problem behavior were negatively correlated.

▲주요어(Key Words) : 기질(temperament),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ion), 문제행동(problem behavior)

* 본 논문은 2009학년도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 정혜진 (E-mail : sollip83@hanmail.net)

I. 서론

유아기에는 주 양육자와의 긴밀한 관계가 중심이 되는 영아기와 달리 주 양육자 뿐만 아니라 또래나 교사 등의 성인과 사회적 관계를 넓혀간다. 유아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주변과 타인에 대한 지각을 하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대부분의 유아는 이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익히며 결과적으로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다. 유아기에 습득된 문제행동은 지속적이어서 학령기로 진입하면서 학교 부적응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므로(Campbell & Ewing, 1990), 유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기질은 개인의 행동 특성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행동양식으로서(Thomas & Chess, 1977), 개인의 심리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반응양식과 이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개인차라 정의(천희영, 1997)된다. 어느 정도 선천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기질(김민희, 1998)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Thomas, Chess 및 Birch(1968)의 연구를 시발로 계속 입증되어 왔다. 이들은 유아가 갖고 있는 기질의 개인차가 이후의 행동장애와 관련된다고 지적하면서 기질을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었다. 국내에서 진행된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김민경, 2005; 우수경, 2007; 이찬숙, 현은자, 2008; 정현희, 2001)들은 기질이 문제행동 예방이나 중재를 위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변인임을 입증하고 있어, 문제행동에 대한 다양한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할 때 유아의 기질 변인을 포함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유아는 사회관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소소한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고 이에 적절히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Salovey와 Sluyter(1997)는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기조절능력이라 하였다. Bronson(2001)은 자기조절능력이 유아기에 유의한 발달을 보이는데, 특히 각성 및 정서반응의 조절, 친숙한 장면에서 행동의 적응적인 조절, 인지적 과정의 조절과 문제해결 등에서 그 능력이 크게 도약된다고 보았다.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나 충동적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유발되는 부적응행동이기 때문에 문제행동에 있어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은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유아는 사려성이 결핍되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사회적·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Goodman, et al., 1993). 또한 통제력이 낮은 유아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공격행동과 같은 문제행동(Kochanska & Aksan, 1995)을 보인다.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유아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질과 함께 자기조절능력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질과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들(우수경, 2007; 이찬숙·현은자, 2008; 정현희·최경순, 2001)이나 자기조절능력과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들(김호정, 2001; 윤진주 등, 2005; 장영숙·조정애, 2000)은 주로 두 변인간의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기 때문에 세 변인간의 상호 관계를 정준상관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여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이 문제행동에 어떠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기질은 선천적이지만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질에 대한 연구의 목적은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유아가 자신의 기질적 특성을 바람직한 방식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데 궁극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영아기에 까다로운 기질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유아가 이후에도 계속 까다로운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발달 단계별로 까다로운 기질의 특성이 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가령 영아기에는 주의 집중력과 지구력의 부족이 까다로운 기질로 여겨지지 않으나, 학동기에는 학습과 관련된 주요 특성으로 간주된다(최영희, 1997). 또한 기질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이는 활동성이 높고 여이는 규칙성이 높다는 연구(천희영, 1992), 남아의 적응력이 낮다는 연구(Hughes et al., 1979) 등과 같은 연구가 있는 반면, 기질의 성차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Klein, 1982)들이 양립하고 있다. 기질이 개인차가 있으며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아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기질 평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유아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신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행동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Kopp(1982)는 자기조절능력의 일반적 발달경향은 영아기에서 아동초기까지 다섯 단계(신경생리학적 조절단계, 감각운동적 조절단계, 통제단계, 자기통제단계, 자기조절단계)를 거쳐 발달한다고 보고 각 단계마다 발달특성과 획득해야 할 인지적 요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Vygotsky(1978)는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이 선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조절되며 타인과의 조절이 점차 자기조절로 전이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연령에 따라 다를 것이며, 각 시기마다 특히 중요한 자기조절능력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자기조절능력의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곽혜경, 1999; 강기숙·이경남, 2001; Kendall & Wilcox, 1979)들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비교해 봄으로써 자기조절능력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Tremblay, 2000), Lapouse와 Monk(1958)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행동은 줄어들어 싸움, 분노 등과 같은 행동이 점점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도 불안과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격행동은 남아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불안은 여아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으며(김정택, 1978), 남아가 여아보다 통제력이 부족해 공격적이고, 부적응적이며, 문제행동 표출이 잦다는 보고(조정애, 2000; Fagan, 1990)가 있었다. 유아의 문제행동은 연령과 성별에 있어 표출되어지는 문제행동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론되는 바,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능력, 문제행동이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과 문제행동의 각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 중 어떤 변인이 문제행동을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능력,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및 자기조절 능력의 하위 변인을 모색하여 문제행동을 예방 및 수정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기질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유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의 하위변인군과

문제행동의 하위변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4-1] 남아와 여아의 하위집단별로 유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의 하위변인군과 문제행동의 하위 변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4-2] 연령에 따른 하위집단별로 유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의 하위변인군과 문제행동의 하위변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3세 이상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자기조절능력발달 단계에서 36개월 이상이 되어야 유아의 전략 제시 능력이나 상황적 요구변화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이 현격히 이루어진다는 Vygotsky(1978)나 Kopp(1982)의 이론을 근거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 4, 5세 유아를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거주지 계층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세 구(남구, 남동구, 계양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다섯 곳을 임의로 선정한 후, 총 232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담임교사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자 22명을 제외한 210명을 최종 자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1) 유아의 기질

만 3세에서 7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천희영(1993)이 한국 유아의 기질 유형화를 위해 사용하였던 기질 평정 척도를 사용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빈도, %)

| | 만 3세 | | | | 만 4세 | | | | 만 5세 | | | |
|----------|----------------|---------------|-------------|----------------|----------------|-------------|---------------|---------------|---------------|--------------|----------------|--|
| 남 아 | 34(16.18) | | | | 34(16.18) | | | | 34(16.18) | | | |
| 여 아 | 32(15.24) | | | | 37(17.62) | | | | 27(12.86) | | | |
| 부모의 배경변인 | | | | | | | | | | | | |
| | 연 령 | | | 학 력 | | | 직 업 | | | | | |
| | 40세 이하 | 40~45세 | 45세 이상 | 고졸 이하 | 대 졸 | 대학원졸 이상 | 전문직 | 사무직 | 판매직 | 생산직 | 가 사 | |
| 부 | 167 (79.52) | 38 (18.10) | 5 (2.38) | 86 (40.95) | 119 (56.67) | 5 (2.38) | 59 (28.10) | 93 (44.29) | 44 (20.95) | 14 (6.66) | . | |
| 모 | 197 (93.81) | 12 (5.71) | 1 (.48) | 112 (53.33) | 97 (46.19) | 1 (.48) | 28 (13.33) | 11 (5.24) | 32 (15.24) | 5 (2.38) | 134 (63.81) | |

하였다. 이 기질 평정 척도는 뉴욕종단연구(NYLS)를 통해 밝혀진 9개의 기질 차원을 요인 분석하여 우리나라 유아의 기질 구성 차원으로 밝혀진 5개의 구성차원 즉,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에 따른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성을 제외한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의 4가지 하위변인만을 사용하였다. 정서성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조절 능력 척도의 하위변인에 포함되었다. 기질 평정 척도에 대한 응답자는 유아의 어머니이며,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성은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고, 활동성은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하며, 생리적 규칙성은 수면, 식사에 관련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이며, 반응성은 약한 반응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임을 나타낸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alpha=.77$ 이었으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alpha=.65\sim.73$ 범위였다.

2)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정란(2003)이 개발하여 수정, 보완한 '유아 자기조절 능력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점검과 자기통제로 구성되며, 자기점검은 자기평가와 자기결정, 자기통제는 행동억제와 정서성으로 구성된다. 자기평가는 개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지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결정은 자기평가의 결과로 상황에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행동억제는 기존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라 행동의 강도나 빈도, 속도, 세기 등을 통제하는 것도 포함한다. 정서성은 화를 내는 정도, 불편을 느끼는 정도, 주의집중정도, 외부자극에 수동적 또는 의존적으로 반응하면서 기쁨을 얻으려는 정도, 지각적 민감성 정도 등을 포함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응답자는 유아의 어머니이며, 문항별 반응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alpha=.71$ 이었으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alpha=.61\sim.70$ 범위였다.

3) 유아의 문제행동

Behar와 Stringfield(1974)의 만 3-6세 유아의 행동 및 부적응 행동을 검사하기 위해 개발한 「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PBQ)」의 번안본(서수경, 1993)을 사용하였다. PBQ는 유아가 기관에서 특정 행동을 어느 빈도로 나타내는지 유아의 담임교사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체 24문항으로 공격성, 불안, 과행동과 산만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

서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alpha=.84$ 였으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alpha=.73\sim.84$ 범위였다.

3. 연구절차

본 검사는 2007년 2월 12일부터 27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5개 어린이집 만 3, 4, 5세 유아였다. 담임교사와 면담을 통해 설문 방법을 구두 전달한 후, 유아의 어머니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질문지를 배부, 회수하도록 요청하였다. 질문지를 배부한 후 2주 뒤부터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232부가 회수 되었으나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의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총 210부가 실제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을 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인구학적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이원변량분석과 Scheffé검증,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능력 및 문제행동의 경향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능력 및 문제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능력 및 문제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의 차이를 검증한 <표 3>을 보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의 기질 중 적응성($F=9.11, p<.01$), 활동성($F=8.62, p<.01$), 반응성($F=4.78,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적응성, 활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는 남아보다 반응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는 활동성이, 여아는 규칙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천희영, 1992)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남아의 적응력이 낮다는 연구(Hughes, Pinkerton & Plewis, 1979)와 기질에서 남아와 여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다고 보고한 연구(정현희, 최경순, 2001)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F=7.28,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만 3세 유아의 활동성이 만 5세 유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기질, 자기조절능력 및 문제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N=210)

| | | 만 3세 | | 만 4세 | | 만 5세 | | 전 체 | | | |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
| 기질 | 적응성 | 남 | 2.97 | (.38) | 2.98 | (.43) | 2.85 | (.40) | 2.93 | (.40) | |
| | | 여 | 2.77 | (.39) | 2.74 | (.44) | 2.81 | (.29) | 2.77 | (.37) | |
| | | 전 체 | 2.87 | (.39) | 2.86 | (.44) | 2.83 | (.35) | | | |
| | 활동성 | 남 | 2.86 | (.35) | 2.70 | (.30) | 2.68 | (.39) | 2.75 | (.35) | |
| | | 여 | 2.72 | (.37) | 2.66 | (.36) | 2.41 | (.39) | 2.60 | (.37) | |
| | | 전 체 | 2.79 | (.36)a | 2.68 | (.33)ab | 2.55 | (.39)b | | | |
| | 생리적 규칙성 | 남 | 3.13 | (.52) | 3.05 | (.43) | 3.09 | (.32) | 3.09 | (.42) | |
| | | 여 | 3.13 | (.50) | 3.03 | (.58) | 2.86 | (.57) | 3.01 | (.55) | |
| | | 전 체 | 3.13 | (.51) | 3.04 | (.51) | 2.98 | (.45) | | | |
| 반응성 | 남 | 3.30 | (.35) | 3.02 | (.38) | 3.12 | (.39) | 3.15 | (.37) | | |
| | 여 | 3.29 | (.36) | 3.19 | (.40) | 3.20 | (.38) | 3.23 | (.38) | | |
| | 전 체 | 3.30 | (.36) | 3.11 | (.39) | 3.16 | (.39) | | | | |
| 자기조절 능력 | 자기평가 | 남 | 3.81 | (.56) | 3.82 | (.62) | 3.96 | (.66) | 3.86 | (.61) | |
| | | 여 | 3.90 | (.45) | 3.88 | (.40) | 3.93 | (.63) | 3.90 | (.49) | |
| | | 전 체 | 3.86 | (.51) | 3.85 | (.51) | 3.95 | (.65) | | | |
| | 자기점검 | 자기결정 | 남 | 2.90 | (.52) | 2.97 | (.52) | 3.19 | (.62) | 3.02 | (.55) |
| | | 여 | 2.86 | (.51) | 2.99 | (.56) | 3.34 | (.58) | 3.06 | (.55) | |
| | | 전 체 | 2.88 | (.52)a | 2.98 | (.54)a | 3.27 | (.60)b | | | |
| | 자기점검 (전체) | 남 | 3.36 | (.46) | 3.39 | (.50) | 3.58 | (.51) | 3.44 | (.49) | |
| | | 여 | 3.38 | (.42) | 3.44 | (.39) | 3.64 | (.57) | 3.49 | (.46) | |
| | | 전 체 | 3.37 | (.44)a | 3.41 | (.45)ab | 3.61 | (.54)b | | | |
| 행동억제 | 남 | 3.06 | (.50) | 3.28 | (.48) | 3.32 | (.69) | 3.22 | (.56) | | |
| | 여 | 3.24 | (.53) | 3.26 | (.57) | 3.42 | (.60) | 3.31 | (.57) | | |
| | 전 체 | 3.15 | (.52) | 3.27 | (.53) | 3.37 | (.65) | | | | |
| 자기통제 | 정서성 | 남 | 3.24 | (.47) | 3.37 | (.63) | 3.44 | (.75) | 3.35 | (.62) | |
| | 여 | 3.35 | (.58) | 3.38 | (.49) | 3.52 | (.50) | 3.42 | (.52) | | |
| | 전 체 | 3.30 | (.53) | 3.38 | (.56) | 3.48 | (.63) | | | | |
| 자기통제 (전체) | 남 | 3.15 | (.37) | 3.33 | (.48) | 3.38 | (.67) | 3.29 | (.51) | | |
| | 여 | 3.30 | (.46) | 3.32 | (.45) | 3.47 | (.49) | 3.36 | (.47) | | |
| | 전 체 | 3.23 | (.42) | 3.33 | (.47) | 3.43 | (.58) | | | | |
| 자기조절능력 전체 | 남 | 3.25 | (.34) | 3.36 | (.41) | 3.48 | (.51) | 3.36 | (.42) | | |
| | 여 | 3.34 | (.34) | 3.38 | (.36) | 3.55 | (.47) | 3.42 | (.39) | | |
| | 전 체 | 3.30 | (.34)a | 3.37 | (.39)ab | 3.52 | (.49)b | | | | |
| 문제 행동 | 불 안 | 남 | 2.02 | (.45) | 2.21 | (.54) | 1.75 | (.48) | 1.99 | (.49) | |
| | | 여 | 1.98 | (.57) | 1.90 | (.57) | 1.52 | (.49) | 1.80 | (.48) | |
| | | 전 체 | 2.00 | (.51)a | 2.06 | (.46)a | 1.64 | (.49)b | | | |
| | 공격성 | 남 | 2.03 | (.45) | 2.41 | (.54) | 1.80 | (.48) | 2.08 | (.49) | |
| | | 여 | 1.65 | (.57) | 1.88 | (.57) | 1.43 | (.49) | 1.65 | (.48) | |
| | | 전 체 | 1.84 | (.51)a | 2.15 | (.46)b | 1.62 | (.49)a | | | |
| | 과행동과 산만 | 남 | 1.82 | (.58) | 1.98 | (.61) | 1.59 | (.52) | 1.80 | (.57) | |
| | | 여 | 1.67 | (.60) | 1.61 | (.45) | 1.21 | (.36) | 1.50 | (.47) | |
| | | 전 체 | 1.75 | (.59)a | 1.80 | (.53)a | 1.40 | (.44)b | | | |
| 문제행동 전체 | 남 | 1.96 | (.47) | 1.84 | (.48) | 1.72 | (.47) | 1.84 | (.47) | | |
| | 여 | 1.77 | (.54) | 1.62 | (.42) | 1.38 | (.39) | 1.59 | (.45) | | |
| | 전 체 | 1.87 | (.51)a | 1.73 | (.45)a | 1.55 | (.43)b | | | | |

주. a, b, c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표 3>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기질에 대한 이원변량분석표

(N=210)

| | 변량원 | SS | df | MS | F |
|---------|-------|-------|-----|------|---------|
| 적응성 | 성별(A) | 1.40 | 1 | 1.40 | 9.11** |
| | 연령(B) | .05 | 2 | .03 | .16 |
| | A×B | .38 | 2 | .19 | 1.25 |
| | 오 차 | 31.26 | 204 | .15 | |
| 활동성 | 성별(A) | 1.11 | 1 | 1.11 | 8.62** |
| | 연령(B) | 1.87 | 2 | .93 | 7.28*** |
| | A×B | .48 | 2 | .24 | 1.88 |
| | 오 차 | 26.17 | 204 | .13 | |
| 생리적 규칙성 | 성별(A) | .32 | 1 | .32 | .25 |
| | 연령(B) | .73 | 2 | .36 | .22 |
| | A×B | .56 | 2 | .28 | .32 |
| | 오 차 | 49.14 | 204 | .24 | 1.77 |
| 반응성 | 성별(A) | .25 | 1 | .25 | 4.78** |
| | 연령(B) | 1.35 | 2 | .67 | 1.18 |
| | A×B | .33 | 2 | .17 | |
| | 오 차 | 28.78 | 204 | .14 | |

p<.01, *p<.001

<표 4>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이원변량분석표

(N=210)

| | 변량원 | SS | df | MS | F |
|--------------|-------|-------|-----|------|---------|
| 자기평가 | 성별(A) | .08 | 1 | .08 | .25 |
| | 연령(B) | .38 | 2 | .19 | .60 |
| | A×B | .12 | 2 | .06 | .18 |
| | 오 차 | 64.65 | 204 | .32 | |
| 자기점검 | 성별(A) | .10 | 1 | .10 | .32 |
| | 연령(B) | 4.95 | 2 | 2.48 | 8.19*** |
| | A×B | .30 | 2 | .15 | .61 |
| | 오 차 | 31.61 | 204 | .30 | |
| 자기점검 (전체) | 성별(A) | .09 | 1 | .09 | .39 |
| | 연령(B) | 1.98 | 2 | .99 | 4.38** |
| | A×B | .01 | 2 | .01 | .03 |
| | 오 차 | 46.18 | 204 | .23 | |
| 행동억제 | 성별(A) | .37 | 1 | .37 | 1.21 |
| | 연령(B) | 1.50 | 2 | .75 | 2.43 |
| | A×B | .39 | 2 | .20 | .63 |
| | 오 차 | 63.03 | 204 | .31 | |
| 자기통제 | 성별(A) | .24 | 1 | .51 | .70 |
| | 연령(B) | 1.02 | 2 | .05 | 1.51 |
| | A×B | .10 | 2 | .34 | .15 |
| | 오 차 | 68.83 | 204 | | |
| 자기통제 (전체) | 성별(A) | .30 | 1 | .30 | 1.25 |
| | 연령(B) | 1.24 | 2 | .62 | 2.58 |
| | A×B | .22 | 2 | .11 | .46 |
| | 오 차 | 49.22 | 204 | .24 | |
| 자기조절능력 전체 | 성별(A) | .18 | 1 | .18 | 1.08 |
| | 연령(B) | 1.54 | 2 | .77 | 4.62** |
| | A×B | .05 | 2 | .03 | .15 |
| | 오 차 | 33.99 | 204 | .17 | |

p<.01, *p<.001

<표 5>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한 이원변량분석표 (N=210)

| | 변량원 | SS | df | MS | F |
|---------|-------|-------|-----|------|----------|
| 불안 | 성별(A) | 1.89 | 1 | 1.89 | 7.89** |
| | 연령(B) | 6.71 | 2 | 3.36 | 14.03*** |
| | A×B | .71 | 2 | .36 | 1.50 |
| | 오차 | 48.82 | 204 | .24 | |
| 공격성 | 성별(A) | 9.44 | 1 | 9.44 | 25.14*** |
| | 연령(B) | 10.15 | 2 | 5.08 | 13.51*** |
| | A×B | .27 | 2 | .13 | .36 |
| | 오차 | 76.64 | 204 | .38 | |
| 과행동과 산만 | 성별(A) | 4.68 | 1 | 4.68 | 16.29*** |
| | 연령(B) | 5.94 | 2 | 2.97 | 10.34*** |
| | A×B | .55 | 2 | .28 | .96 |
| | 오차 | 58.60 | 204 | .29 | |
| 문제행동 전체 | 성별(A) | 4.86 | 1 | 4.86 | 22.42*** |
| | 연령(B) | 7.07 | 2 | 3.53 | 16.32*** |
| | A×B | .41 | 2 | .21 | .95 |
| | 오차 | 44.17 | 204 | .22 | |

p<.01, *p<.001

다음으로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자기조절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선우현(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이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지성에 등, 2006)와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아의 자기결정(F=8.19, p<.001), 자기점검(F=4.38, p<.01) 및 자기조절능력(F=4.62,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결정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 5세 유아의 자기점검 및 자기조절 능력이 만 3세 유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혹저항에 관한 연구들(강기숙, 이경님, 2001; Brandshaw et al., 1991; Vaughn et al., 1984; Holtz & Lehman, 1995)에서 유아의 유혹저항 행동이 만 3세 경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5세에는 안정적이 되며, 혐오한 과제를 인내하는 행동은 3, 4세보다 5세경에 현저히 발달된다는 결과를 일부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의 불안(F=7.89, p<.01), 공격성(F=25.14, p<.001), 과행동과 산만(F=16.29, p<.001), 문제행동(F=22.42, p<.001)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아보다 남아가 불안, 공격성, 과행동과 산만, 문제행동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적이고, 불안하며, 산만한 것과 같은 문제행동을 더 자주 표출한다는 우수경(2007)의 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아의 불안(F=14.03, p<.001), 공격성(F=13.51, p<.001), 과행동과 산만(F=10.34, p<.001), 문제행동(F=16.32, p<.001)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만 3, 4세 유아보다 만 5세 유아보다 불안 수준이 높았고, 만 4세 유아의 공격성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세 유아는 만 3, 4세 유아보다 과행동과 산만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문제행동 수준은 만 3, 4세 집단이 만 5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4세 유아보다 만 3세와 만 5세 유아보다 과행동과 산만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권수진(200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2. 유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과 문제행동의 관계

유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과 문제행동간의 상호관계를 정준상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제시된 제1 정준변량함수의 정준부하치를 살펴보면 예측변인군에서 가장 부하치가 높은 변인은 자기결정(.77), 자기평가(.63)였으며, 준거변인군 중 부하치가 가장 높은 변인은 불안(.94), 과행동과 산만(.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군에서 자기결정은 군내변량의 36.42%를, 자기평가는 24.69%를 설명하였으며, 준거변인군에서는 불안이 38.26%, 과행동과 산만이 35.22%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의 자기결정 및 자기평가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잘 예측할 수 있었으며, 특히 유아의 문제행동 중 불안, 과행동과 산만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유아가 자율적으로 문제해결 전략을 선택하여 결정하고, 사전에

<표 6> 유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 하위변인군과 문제행동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상관관계분석 (N=210)

| | 예측변인군 | | | | | | | | | 준거변인군 | | | | |
|-----------------|-------|-------|-------|------|-------|-------|-------|-------|-------|-------|-------|-------|-------|-----|
| | 적응성 | 활동성 | 반응성 | 생리적 | 규칙성 | 자기평가 | 자기결정 | 행동억제 | 정서성 | 불안 | 공격성 | 과행동 | 산만 | |
| 제 1 정준 변량 합수 | W | -.21 | -.45 | .07 | -.10 | .41 | .63 | -.44 | .26 | 1.62 | -.52 | -.27 | -.34 | 2.3 |
| | L | -.14 | -.49 | .22 | .04 | .63 | .77 | .28 | .49 | | -.94 | -.78 | -.90 | |
| | L2 | .02 | .24 | .05 | .00 | .40 | .59 | .08 | .24 | | .88 | .61 | .81 | |
| | %ΣL2 | 1.23 | 14.81 | 3.08 | 0.00 | 24.69 | 36.42 | 4.94 | 14.81 | | 38.26 | 26.52 | 35.22 | |
| 제 2 정준 변량 합수 | W | -.43 | .03 | .36 | .45 | -.51 | .13 | .72 | -.25 | 1.03 | 1.44 | -.94 | -.70 | .35 |
| | L | -.44 | -.34 | .21 | .49 | .18 | .17 | .61 | .10 | | .33 | -.47 | -.13 | |
| | L2 | .19 | .12 | .04 | .24 | .03 | .03 | .37 | .01 | | .11 | .22 | .02 | |
| | %ΣL2 | 18.45 | 11.65 | 3.88 | 23.30 | 2.91 | 2.91 | 35.92 | .09 | | 31.43 | 62.86 | 5.71 | |

W: 정준계수. L: 정준부하량.

<표 7> 남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 하위변인군과 문제행동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상관관계분석 (N=114)

| | 예측변인군 | | | | | | | | | 준거변인군 | | | | |
|-----------------|-------|-----|------|-------|------|-------|-------|------|------|-------|-------|-------|-------|------|
| | 적응성 | 활동성 | 반응성 | 생리적 | 규칙성 | 자기평가 | 자기결정 | 행동억제 | 정서성 | 불안 | 공격성 | 과행동 | 산만 | |
| 제 1 정준 변량 합수 | W | .30 | .51 | -.09 | -.08 | -.76 | -.52 | .34 | .28 | 1.25 | .15 | .21 | .76 | 2.05 |
| | L | .05 | .29 | -.36 | -.18 | -.77 | -.60 | -.20 | -.13 | | .82 | .66 | .97 | |
| | L2 | .00 | .08 | .13 | .03 | .59 | .36 | .04 | .02 | | .67 | .44 | .94 | |
| | %ΣL2 | .00 | 6.40 | 10.40 | 2.40 | 47.20 | 28.80 | 3.20 | 1.60 | | 32.68 | 21.46 | 47.32 | |

W: 정준계수. L: 정준부하량.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며,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수록 유아의 불안과 과행동과 산만의 문제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 정준변량합수의 정준부하치를 살펴보면 예측변인군에서 가장 부하치가 높은 변인은 행동억제(.61)였으며, 준거변인군 중 부하치가 가장 높은 변인은 공격성(.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군에서 행동억제는 군내변량의 35.92%를 설명하였으며, 준거변인군에서는 공격성이 62.86%를 설명하였다. 이는 유아의 행동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측해 주며, 특히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성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유아가 내면화된 규칙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 부정적 정서를 억제할수록 공격성의 문제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성별에 따라 기질, 자기조절능력 및 문제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남아와 여아의 하위집단별로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 하위변인군과 문제행동의 하위변인군 관계를 정준상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남아의 기질, 자기조절능력과 문제행동간의 정준상관 분석결과 3개의 정준함수 중 1개의 정준함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이 중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제1 정준함수(Wilk's Lamda=.646, p<.01)에 대해 정준상관관계를 자세히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 제시된 제1 정준변량합수의 정준부하치를 살펴보면 예측변인군에서 가장 부하치가 높은 변인은 자기평가(.77), 자기결정(.60)이었으며, 준거변인군 중 부하치가 가장 높은 변인은 과행동과 산만(.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군에서 자기평가는 군내변량의 47.20%, 자기결정은 28.80%를 설명하였으며, 준거변인군에서는 과행동과 산만이 47.32%를 설명하였다. 이는 남아의 자기평가와 자기결정이 남아의 문제행동을 잘 예측할 수 있었으며, 특히 남아의 문제행동 중 과행동과 산만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자율적으로 문제해결 전략을 선택하여 결정하고, 사전에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며,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남아일수록 과행동과 산만의 문제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여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여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을 예측변인군으로 하고 문제행동을 준거변인군으로 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정준함수 중 2개의 정준함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제1 정준함수(Wilk's Lamda=.536, p<.001)와 제2 정준함수(Wilk's Lamda=.711, p<.01)에 대해 정준상관관계를 자세히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제시된 제1 정준변량합수의 정준부하치를 살펴보면 예측변인군

<표 8> 여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 하위변인군과 문제행동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상관관계분석 (N=96)

| | 예측변인군 | | | | | | | | | 준거변인군 | | | | |
|-----------------|-------|------|-------|------|-------|-------|-------|------|-------|-------|-------|-------|-------|------|
| | | 적용성 | 활동성 | 반응성 | 생리적 | 규칙성 | 자기평가 | 자기결정 | 행동억제 | 정서성 | 불안 | 공격성 | 과행동 | 산만 |
| 제 1 정준 변량 함수 | W | -.34 | .26 | .18 | .29 | -.53 | -.17 | .61 | .64 | 1.09 | 1.46 | -.73 | -.17 | 1.02 |
| | L | -.41 | .14 | .05 | .18 | -.50 | -.52 | .05 | -.59 | | .83 | .15 | .56 | |
| | L2 | .17 | .02 | .00 | .03 | .25 | .27 | .00 | .35 | | .69 | .02 | .31 | |
| | %ΣL2 | 15.6 | 1.83 | .00 | 2.75 | 22.96 | 24.77 | .00 | 32.11 | | 67.65 | 1.96 | 30.39 | |
| 제 2 정준 변량 함수 | W | .12 | -.03 | -.04 | -.42 | .84 | -.88 | -.19 | -.18 | 1.02 | -.98 | .52 | 1.31 | 1.32 |
| | L | .06 | .36 | .06 | -.37 | .21 | -.60 | .05 | -.59 | | .43 | .67 | .83 | |
| | L2 | .00 | .13 | .00 | .14 | .04 | .36 | .00 | .35 | | .18 | .45 | .68 | |
| | %ΣL2 | .00 | 12.75 | .00 | 14.28 | 3.92 | 35.29 | .00 | 34.31 | | 13.64 | 34.09 | 51.51 | |

W: 정준계수. L: 정준부하량.

<표 9> 만 4, 5세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능력 하위변인군과 문제행동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상관관계분석 (N=144)

| | 예측변인군 | | | | | | | | | 준거변인군 | | | | |
|-----------------|-------|------|-------|------|------|-------|-------|------|-------|-------|-------|-------|-------|------|
| | | 적용성 | 활동성 | 반응성 | 생리적 | 규칙성 | 자기평가 | 자기결정 | 행동억제 | 정서성 | 불안 | 공격성 | 과행동 | 산만 |
| 제 1 정준 변량 함수 | W | -.39 | -.36 | .06 | -.17 | .46 | .58 | -.31 | .14 | 1.72 | -.46 | -.30 | -.36 | 2.35 |
| | L | -.37 | -.52 | .26 | -.01 | .62 | .72 | .38 | .45 | | -.93 | -.81 | -.91 | |
| | L2 | .14 | .27 | .07 | .00 | .38 | .52 | .14 | .20 | | .86 | .66 | .83 | |
| | %ΣL2 | 8.14 | 15.70 | 4.07 | .00 | 22.09 | 30.23 | 8.14 | 11.63 | | 36.60 | 28.08 | 35.32 | |

W: 정준계수. L: 정준부하량.

에서 가장 부하치가 높은 변인은 정서성(.59), 자기결정(.52), 자기평가(.50)이었으며, 준거변인군 중 부하치가 가장 높은 변인은 불안(.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군에서 정서성은 군내변량의 32.11%를, 자기결정은 24.77%를, 자기평가는 22.96%를 설명하였으며, 준거변인군에서는 불안이 67.65%를 설명하였다. 이는 여아의 정서성, 자기결정, 자기평가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잘 예측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여아의 문제행동 중 불안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외적통제 기준의 내면화에 의한 행동억제이기보다 정서적인 통제의 특성을 갖고, 사전에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동을 하며,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자율적으로 문제해결 전략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여아일수록 불안의 문제가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2 정준변량함수의 정준부하치를 살펴보면 예측변인군에서 가장 부하치가 높은 변인은 자기결정(.60), 정서성(.59)이었으며, 준거변인군 중 부하치가 가장 높은 변인은 과행동과 산만(.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군에서 자기결정은 군내변량의 35.29%, 정서성은 34.31%를 설명하였으며, 준거변인군에서는 과행동과 산만이 51.51% 설명하였다. 이는 여아의 자기결정, 정서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을 잘 예측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여아의 문제행동 중 과행동과 산만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사전에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동,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외적통제 기준의 내면화에 의한 행동억제이기보다 정서적인 통제를 하는 여아일수록 과행동과 산만의 문제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라 기질, 자기조절능력 및 문제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연령에 따른 하위집단별로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 하위변인군과 문제행동의 하위변인군 관계를 정준상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연령별 하위집단은 이원변량분석 결과에 따라 만 3세 유아 집단과 만 4, 5세 유아 집단으로 이분하였다.

먼저 만 3세 유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을 예측변인군으로 하고 문제행동을 준거변인군으로 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만 4, 5세 유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을 예측변인군으로 하고 부정관계의 질을 준거변인군으로 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정준함수 중 1개의 정준함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제1 정준함수(Wilk's Lamda=.454, p<.001)에

대해 정준상관관계를 자세히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제시된 제1 정준변량함수의 정준부하치를 살펴보면 예측변인군에서 가장 부하치가 높은 변인은 자기결정(.72), 자기평가(.62)였으며, 준거변인군 중 부하치가 가장 높은 변인은 불안(.93), 과행동과 산만(.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군에서 자기결정은 군내변량의 30.23%, 자기평가는 22.09%를 설명하였으며, 준거변인군에서는 불안이 36.60%, 과행동과 산만이 35.32%를 설명하였다.

이는 만 4, 5세 유아의 자기결정, 자기평가가 이들의 문제행동을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만 4, 5세 유아의 문제행동 중 불안과 과행동과 산만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사전에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동을 하고,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는 유아일수록 불안과 과행동과 산만의 문제가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낸다.

II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능력, 문제행동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 유아의 기질 하위변인군 및 자기조절능력 하위변인군과 유아의 문제행동 하위변인군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세 개 구에서 임의 표집된 다섯 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 4, 5세 유아 210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능력, 문제행동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적응성, 활동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응성은 여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이는 활동성이, 여아는 규칙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천희영, 1992)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남아의 적응력이 낮다는 연구(Hughes, et al., 1979)와 기질에서 남아와 여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다고 보고한 연구(정현희·최경순, 2001)와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활동성에서 만 3세와 만 5세 집단 간에 차이를 나타냈다. 즉, 유아의 연령에 따른 기질의 차이에서 만 5세가 만 3세보다 활동성이 더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활동성이 비교집단보다 높게 나타나는 만 3세 시기에 급속도로 증대되는 운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유아의 활동량과 활동반경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둘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만 5세 집단은 자기결정, 자기점검, 자기점검, 자기조절능력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유혹저항에 관한 연구들(강기숙, 이경남, 2001; Bandshaw et al., 1991; Vaughn et al., 1994; Holtz & Lehman, 1995)에서 자기통제행동을 분석한 결과 유혹저항 행동은 3세경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4세까지 발달하며 5세에는 안정적이 되고, 험오한 과제를 인내하는 행동은 3, 4세보다 5세경 현저히 발달된다고 보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해 주는 연구결과이다.

셋째, 유아의 문제행동에 있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불안, 공격성, 과행동과 산만, 문제행동 전체에서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적이고, 불안하며, 산만한 것과 같은 문제행동을 더 자주 표출한다는 우수경(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에 있어 만 3, 4세 유아는 만 5세 유아보다 불안 수준이 높았고, 만 4세 유아의 공격성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세 유아는 만 3, 4세 유아보다 과행동과 산만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문제행동 수준은 만 3, 4세 집단이 만 5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4세 유아는 만 3세와 만 5세 유아보다 과행동과 산만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권수진(200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비교집단에 비해 낮은 결과를 나타낸 만 5세의 문제행동은 부모와 교사가 이들에게 공격행동은 가능한 한 참고, 협동하며 공유하는 행동을 많이 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학령전 과정을 대비하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라는 연구(Emmerich, 1966)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넷째, 유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 하위변인군과 문제행동 하위변인군 간에 유의한 정준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결정과 자기평가가 문제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었으며, 특히 문제행동 중 불안, 과행동과 산만을 잘 예측하였다. 즉, 유아는 자율적으로 문제해결 전략을 선택하여 결정하고, 사전에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동을 하며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유아일수록 불안, 과행동과 산만의 문제가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유아의 행동억제가 문제행동을 잘 예측할 수 있었으며, 특히 문제행동 중 공격성을 잘 예측하였다. 즉, 유아는 내면화된 규칙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지시 또는 자신의 의지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유아일수록 공격성의 문제가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섯째, 남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 하위변인군과 문제행동 하위변인군 간에 유의한 정준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남아의 자기평가와 자기결정이 문제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었으며, 특히 문제행동 중 과행동과 산만을 잘 예측하였다. 즉, 남아가 자율적으로 문제해결 전략을 선택하여 결정하고, 사전에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동을 하며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남아일수록 과행동과 산만의 문제가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섯째, 여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 하위변인군과 문제행

동 하위변인군 간에 유의한 정준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여아의 정서성, 자기결정, 자기평가가 문제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었으며, 특히 문제행동 중 불안을 잘 예측하였다. 즉, 외적통제에 대한 순응이나 외적통제 기준의 내면화에 의한 행동억제가 이기보다는 정서적인 통제의 특성을 갖고, 사전에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동,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예측하며 자율적으로 문제해결 전략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여아일수록 불안의 문제가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여아의 자기결정, 정서성이 문제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었으며, 특히 문제행동 중 과행동과 산만을 잘 예측하였다. 즉, 사전에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며,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예측하며 외적통제에 대한 순응이나 외적통제 기준을 내면화하는 여아일수록 과행동과 산만의 문제가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낸다. 남아와 달리 여아의 불안에 있어 정서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생물학적 요인이 공격의 성차를 촉진하는 사회환경적 영향과 상호작용하여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빨리 성숙하고 더 빨리 말하며 고통에 더 민감한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Bell et al., 1971; Hutt, 1972; Maccoby, 1980; Moss, 1967)과 맥을 같이 한다.

일곱세, 만 4, 5세의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 하위변인군과 문제행동 하위변인군 간에 유의한 정준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만 4, 5세 유아의 자기결정과 자기평가가 문제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문제행동 중 불안, 과행동과 산만을 잘 예측하였다. 즉, 사전에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며,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는 유아일수록 불안과 과행동과 산만의 문제가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기질과의 관계 혹은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을 토대로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이라는 세 변인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자기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높여주는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많은 대상을 고루 표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 척도는 어머니보고 척도로서 어머니의 주관적인 인식을 통해 측정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머니 외에 다양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함께 측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담임교사에 의해 측정된 유아의 문제행동 척도 역시 담임교사 외에 훈련받은 관찰자가 일정기간 동안 직접 유아의 문제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의 하위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 하위변인 간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기숙 · 이경님(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22(4)**, 115-132.

곽해경, 조복희(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165-176.

권수진(2007). 어머니의 부모역할과 유아의 놀이성,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2005). 유아의 혼자놀이와 기질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희(1998).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및 만족도에 따른 문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호정(2001).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아동의 자기 조절 능력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택(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수경(1993). 유아의 행동과 기질 및 성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수경(2007). 유아의 성, 기질, 사회적 능력 및 자기통제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427-251.

윤진주 · 강신영 · 이복주(2005).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관계성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5)**, 761-770.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정란 · 양옥승(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2)**, 69-90.

이찬숙 · 현은자(2008). 유아의 기질, 사회적 유능감, 도덕성 및 부모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9(3)**, 223-238.

장영숙 · 조정애(2001).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 및 교사 기질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2)**, 97-119.

정현희 · 최경순(2001). 아동의 기질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14.

조정애(2000).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 기질 및 교사 기질과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희영(1991). 아동용 기질 측정도구의 개발연구. *아동학회지*, **12(2)**, 78-93.

천희영(1993).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4(2)**, 17-34.

- 천희영(1997). 어머니가 지각하는 한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18(2), 191-211.
- 최영희(1991). 아동의 기질이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영희(1997). 아동기의 까다로운 기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99-110.
- Behar, L. B., & Stringfield, S. (1974). A behavior rating scale for the preschool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10, 601-610.
- Bell, R. Q., Weller, G. M., & Waldrip, M. F.(1971). Newborn and preschooler: Organization of behavior and relations between periods.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Brandshaw, D. L., Usui, H., Miyake, K., Campos, R. G., & Campos, J. J.(1991).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maternal control communication and compliance. In M. Bullock (ed), *The development of intentional action, cognitive, motivational and interactive processes*(pp. 55-68). Basel : Karger.
- Bronson (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 Nature and Nurture*. N.Y.: The Guilford Press.
- Cambell, S. B., & Ewing, L. J. (1990). Follow-up of hard-to-manage preschoolers: adjustment at age 9 and predictors of continu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6), 871-889.
- Emmerich, W. (1959). Continuity and stability in early social development: II. Teacher's ratings. *Child Development*, 37, 17-27.
- Fagan, J. (1990). The intervention between child's sex and temperament in predicting behavior problem of preschool-age child in day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59, 1-9.
- Goodman, SH, Brogan, D, Lynch, ME, Feilding, B (1993).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Child Development*, 64, 516-531.
- Holt, B. A. & Lehman, E B.(1995).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and use of strategies for self-control in a resistance-to-distraction task. *Merrill-Palmer Quarterly*, 41, 361-380.
- Hughes, M., Pinkerton, G., & Plewis, I. (1979). Children's difficulties on starting Infant Schoo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 187-196.
- Hutt, C.(1972). *Males and females*. Baltimore: Penguin Books.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7(6), 1020-1029.
- Klein, H. A. (1980). Early childhood group care : Predicting adjustment from individual tempera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7, 125-131.
- Klein, H. A. (1982).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adjustment to kindergarten and Head Start. *Journal of Psychology*. Vol. 112, pp. 259-268.
- Kostelnik, M. J., Whiren, A. P., Soderman, A. K., Stein, L. C. & Gregory, K. (2002).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Theory to practice* 4th ed. Delmar.
- Kopp, C. B. (1982). Regulation of distress and nagative emotions: A development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2-54.
- Lapouse, R., & Monk, M. A. (1958). An epidemiologic study of behavior characteristics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48(9), 1134-1144.
- Marccoby, E. E.(1980). *Social development: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San Diego, CA: Harcourt Brace Jovanovich.
- Moss, H. A.(1967). Sex, age, and state as determinants of mother-infant interaction. *Merril-Palmer Quaterly*, 13, 19-36.
- Salovey, P. & Sluyter, D. A. (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ogence*(2nd ED.). Basic Books.
- Thomas, A., Chess, S., Birch, H., Hertzig, M., & Korn, S. (1963). *Behavioral individuality in early childhood*. New York: N.Y. University Press.
- Thomas, A., & Chess, S. & Birch, H. G.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enner.
- Tremblay, R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24(2), 129-141.
- Vaughn, B. E., Kopp, C. B., & Krakow, J. B. (1984). The emergence and consolidation of self-control from eighteen to thirty months of age : Normative trends and individual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55, 990-1004.
- Vygotsky, L. (1978). *Mind in Socie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접수일 : 2009년 03월 15일
 심사일 : 2009년 03월 31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3월 31일